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업소록

The Sangha Book of Korean Buddhism

발행인	경암 스님	운영위원	장병문 대덕화 이양규
감사	해인 스님	표지디자인	홍민재
편집국장	이종권	디자인	Kirinbooks 이은희
Web Master	김기현		김희진 이윤교
편집위원	성향스님 보리화 안은희	Production	Todd H. Cheong
	표지사진	뱅크버 서광사	

발행처 미주불교신문사

주소 5300 Ox Rd. Fairfax, VA 22030 • 전화번호 1-(718) 644-0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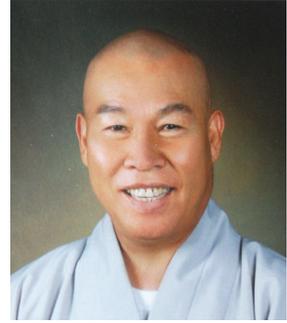
- 홈페이지 - www.koreanbuddhism.us
- 뉴스 제보 - koreanbuddhistnews@gmail.com
- 광고문의 - thesanghabook@gmail.com

이 책은 2011 조계종 해외포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차례

발간사 · 발행인 경암스님	19	New York	82
축사 · 미동부해외특별교구 교구장 휘광스님	20	Pennsylvania, Rhode Island	94
추천사 · LA 동국대학교 서운교 총장	21	Virginia, West Virginia	98
미주불교신문사: 역사와 현황	23	미국서부 Western United States	101
2012년 달력	27	Alaska, Arizona	102
한글 반야심경	50	California - Southern	103
Chapter Korea		California - Northern	124
한국불교 주요 종단주소록	52	Idaho, Nevada	130
조계종 교구본사 주소, 연락처 & 홈페이지	53	New Mexico, Oregon	131
한국불교 주요 인터넷 사이트	54	Washington	133
템플스테이 사찰지도	55	미국중서부	135
North America: National & Regional		Arkansas, Colorado, Illinois	136
미주한국불교 승가단체 및 종무기관	66	Indiana, Kansas	137
미국동부 Eastern United States	71	Kentucky, Michigan, Minnesota	138
Conneticut, Delaware, Florida	72	Missouri, Ohio, Oklahoma	140
Georgia, Maine	74	Texas, Wisconsin	142
Maryland	75	미국 태평양지역	147
Massachusetts	77	Hawaii, Guam, Saipan	150
New Jersey	78	캐나다	153

발간사



비상과 희망을 함께하는 흑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동포와 특히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부처님께 축원 드립니다.

오늘 발간되는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및 불교인 업소록의 발행인으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壬辰年에는 대한민국과 한국 불교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변화와 계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사부대중의 주소록 정보는 불교의 산 정보이며 내일을 위한 불교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본이므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2011년도에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지원으로 주소록 불사를 이루게 된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종권 법사가 편집장으로 동분서주하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주한국불교 총람 및 불교인 업소록 발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을 사랑하고 21세기 시대적 명제로 부처님 제자가 하나되어, 해외불교인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과제로 이 책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조계종 총무원 원장 스님은 물론 미국 동, 중, 서부 큰 스님들과 각 사찰 주지스님 그리고 신행단체장등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佛記 2556년 1월 1일

발행인 • 워싱턴 보림사 주지
해봉 김경암 합장



축사

혹룡이 용솟음친다는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와 축복이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불교가 미주에서 터를 잡은 지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한국불교는 많은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이 황량한 불교의 불모지에서 맨손으로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꿔온 덕분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해야만 했지만 세계만방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넘쳐 흐르는 정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뿌리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불교가 이국 땅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교인 모두가 신뢰와 화합 속에 살아가는 단합된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미주한국불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낸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의 발간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발행인이신 경암 큰스님은 워싱턴지역에서 삼십여년간 포교에 전념해 오신 미주한국불교의 거장이십니다. 이 책의 발간으로 이번에 우리 미주한국불교 커뮤니티에 큰 선물을 선사하셨습니다. 모든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년은 한국불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해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청 속에서 이천년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 미국땅에 해외교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불교는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으로 세계의 중심 미국땅에서 웅비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이 발간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이 책을 통해 미주 불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6년 1월

대한불교 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휘광** 합장



추천사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지난 수 십 년간의 노력이 이곳 미주지역에서도 이제 그 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는 이즈음에 미주 불자 여러분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여러 수행도량과 관련 업체들의 소식처를 한 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을 하신다니 우선 한량없는 기쁨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소에도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배우고, 저마다 자신의 삶 속에 회향하시는 불자님들이시지만 그간 한국불교의 맥을 잇는 수행도량간의 네트워크 부재에 따른 여러 가지 아쉬움이 이번 일로 큰 위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이를 통하여 미주 전 지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불자님들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우리 한국불교의 미주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총람의 발간에 참여하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발간사업을 기대하면서, 모든 이들의 마음마다 미명을 깨우시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6년 1월

LA 동국대학교 총장 **서운교** 합장

The Korean Buddhist News USA

미주불교신문사

역사

미주불교신문은 1988년 한국의 불교신문 미주지사로서 도철스님이 초대 발행인으로 시작된 후 워싱턴 보림사 경암스님을 발행인으로 13년간 발행된 바 있습니다. 인력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휴간하게 되었지만 본국의 지원 없이 미주불교계의 힘만으로 신문발행을 오랜 기간 유지했었던 것입니다.

현황

미주불교신문은 2011년을 맞이하여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미주한국불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교신문 복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미주한국불교 총람 및 불교인 업소록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조계종 해외포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에 참가하여 중단으로부터 중요성을 인정받고 500만원의 지원금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및 불교인 업소록

1만부를 발행하여 미주 불자들의 가정에 한 권씩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이 사업은 미주한국 불교 전체의 성원과 협조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불교계의 대동단결 없이는 불교신문도 미주한국불교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각오로 모험을 걸어 보았습니다. 모험을 감행했던 근거는 우리 불교만이 갖고 있는 저력과 다양성과 아름다움입니다. 많은 표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이천 년을 관통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힘은 고국에서 이익만리 떨어진 이곳 미주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지난 한해 동안 매진한 결과 미주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 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여건 속에서 처음 만들어진 책이라 미진한 면도 있지만 첫 번째 책인 만큼 우리 불교계의 자주적인 역량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불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미와 장점을 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책으로 불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미국에서의 불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미주불교신문사의 불사는 신문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이십 여 년 전 원력 하나만으로 헤쳐나갔었던 그 길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가다가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의 커뮤니티와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January, 2012

A Message from the Editor

Buddhists everywhere take refuge in the Buddha, Dharma and Sangha. We believe that the Three Jewels are equally important. To know Sangha is just as important as Buddha and Dharma. Sangha is the ground where Buddhist teachings are refined in the human world. Buddhism becomes lived experience in the Third Jewel.

This is a book of Sangha specially dedicated to the Korean Buddhist community in North America. This is the first serious effort to bring together all groups representative of Korean Buddhism run by Koreans and Americans here.

Since Korean Buddhism became established in North America, it has served Korean immigrant community as spiritual and cultural shelter. Eminent teachers and masters from Korea have also transmitted Dharma to Western students. They opened a number of Buddhist centers across the country and they have been run by their Western students. These centers are very important in the Korean community. We have compiled a list of these English speaking centers for this directory, too. This is the first resource to include these two streams of Korean Buddhism in North America.

Buddha taught that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interconnected. That Sangha book exemplifies this truth. We are all connected as disciples of the Enlightened Ones. Although the present book is dedicated to the Korean Buddhist tradition, we do not intend to limit the boundaries of our interconnectedness to one cultural tradition in the future.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a bigger project. We will explore all North American Buddhist communities in the next issue. We would like to include all the Buddhist groups who want to share their practice with the world. May this book of networking resource lead to more familiarity and friendships among diverse American sangha organizations. May this wonderful land become a Buddhist paradise.

Jong Kweon Yi

Editor, The Sangha Book of Korean Buddhism